

딸·아들 걱정... 참사 영상 떠올라... '이태원 트라우마'

156명의 사망자 낸 '이태원 참사' 광주·전남 지역민에도 큰 후유증 자녀 타지 보낸 부모들 '안절부절' 지자체, 정신건강 상담센터 운영 슬자리 취소·모임 자제 움직임도

156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헬러윈 참사'는 광주·전남 지역민에게도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이들 외에도 SNS와 언론을 통해 참사 현장 영상 등이 유포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관련기사 3·4·6·7면>

특히 상당수 시민이 자신이나 자녀들도 참사에 휘말릴 수 있었다는 불안함,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타향살이 자식들 어찌나... 부모들 발동동=대학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자녀를 서울이나 타지로 보낸 부모들은 참사 이후 자식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고 있다. 부모들은 혹시나 변을 당하진 않을까 매일 밤 자녀들에게 안부전화를 걸고, 인파가 몰리는 서울보다는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임재식(59·나주시)씨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인천에서 생활을 시작한 딸에 대한 걱정이 요즘 부쩍 늘었다. 임씨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통감한다"며 "우리 딸과 비슷한 또래들이 손쓸 수 없이 참사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계속 머리 속을 맴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임씨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공공기관에 취업한 딸 현주(26)씨에게 매일 확인전화를 하고 있다. 원래 한달에 한 번 정도나 하던 통화를 매일 하는 바람에 딸이 불편해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임씨의 말이다.

문영환(64·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도 3년 전 직장일을 하느라 경기도 일산에 터를 잡은 딸 지은(26)씨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밤마다 전화해서 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이다. 문씨는 "딸에게 가까운 광주 쪽으로 이직하면 안되느냐", "독립을 원한다면 광주에서 독립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설득중"이라고 전했다.

◇'참사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PTSD 주의보=광주시의 심리지원센터에는 참사와 관련한 트라우마, 이른바 PTSD를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PTSD는 전쟁·고문·자연재해·사고 등 심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표명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 스트레스를 겪은 뒤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를 뜻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광주시와 자치구, 사·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은 지난 1일 긴급 회의를 열고 시민 심리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자치단체와 센터가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은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센터를 운영하고 1일까지 15명에게 전화 및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 참사 직후 관련 상담 접수를 시작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5명의 가정에 전문 상담사를 보냈다.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참사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우보다 언론·인터넷 매체·SNS 등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다. 참사 순간을 찍은 영상, 시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 등을 접하면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담을 요청했던 한 시민은 "참사 당시 상황을 우연히 영상으로 봤는데, 그 이후로 두통이 생기고 불안감, 죄책감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눈만 감아도 영상에 본 장면이 떠오른다"고 토로했다.

▶2면으로 계속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참사 4시간 전 "압사 위험" ... 112 신고, 경찰이 뭉갸다

사고 전 "큰 일 났다" 신고 11건
경찰, 불편신고로 판단 대응 안 해

'이태원 헬러윈 참사'가 발생한 4시간 전에 참사현장인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최초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최초 신고를 포함해 사고 발생 시간(밤 10시15분)까지 4시간 여 동안 "압사당할 것 같다"는 위험을 감지한 112 신고가 경찰에 11건 접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이번 참사를 방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당일 관련 112 신고 접수 녹취록 11건에는 많은 인파로 인한 압사사고 위험을 알리며 경찰의 인원 통제 등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 신고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으로 기록됐다.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15분보다 4시간 정도 이른 시점이다.

특히 첫 신고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위험성을 알렸다. 신고자는 "해밀턴 호텔 골목에 사람들이 밀려 내려가고,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겨우 빠져나왔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이다"면서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와 이태원 역 1번 출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골목으로 모두 들어간다"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한다. 나오지도 못하는 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니고 있다"고 경찰에 통제 등을 요청했다.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는 이후 계속해서 이어졌다. 오후 8시9분 두 번째 신고자도 "사람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체가 돼 밀치고 난리가 나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후에도 "사람들이 거의 압사 당할 것 같다. 이수리장이다" "인파가 너무 몰려서 사고가 날 것 같다. 큰 일이 날 것 같다"는 신고들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첫 신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이태원 일대 헬러윈 축제와 관련한 112신고 전화에도 '일반적인 불편 신고'로 판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시민들의 잇따른 신고를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최초 신고 또는 몇 차례 신고 접수 이후 적극적으로 경찰병력 등을 배치해 대응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직전 집계보다 1명 늘어 총 156명이 됐다. 중상자는 사망자로 전환되면서 1명 줄어든 29명, 경상자는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1명이다. 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00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최권일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태원 헬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년이 꿈꾸는 전남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

10만원, 3년간 매칭 지원
(최대 720만원)



**취업자
주거비 지원**

월 10만원, 12개월
(최대 120만원)



**결혼 축하금
지원**

200만원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청년 마을
조성**

청년 공간, 체험 프로그램
(2023년 10개소, 개소당 3억원)



**문화 복지비
지원**

연 20만원
(21세~28세 청년)

